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2, pp.463-477  
<https://doi.org/10.29212/mh.2022..122.46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자료소개]

### 한반도주둔일본군 사료총서 ①~⑨

-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편, 역사공간, 2020, 2021

서민교 |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책임연구원

-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사료총서 ①~⑨의 각권의 구성 내용과 특징
  3. 나가는 말

#### 1. 들어가는 말

한국근대사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군사사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의 근대사는 일본군의 조선 침략의 역사다’라는 명제로 치환될 수 있겠다. 호, 불호를 떠나 근대 한반도를 침략한 일제의

물리적 기반이자, 조선 통치의 근간으로 작용했던 한반도 주둔 일본군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으며 학술적으로도 연구가 더욱 진척되어야 하는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사료총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토대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소장 정태현)의 [한반도주둔 일본군 연구팀]이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수행했던 [한반도주둔 일본군(1875~1945) 관계 기초사료 수집 및 번역 총서 발간] 연구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전반적으로 평가해 볼 때, 한반도주둔 일본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한국에서는 임종국의 연구<sup>1)</sup>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전문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지만, 연구의 저변이나 전문연구자가 많은 편이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일본에서도 군사사 연구의 일환으로 한반도주둔 일본군(이하 조선군으로 약칭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 또한 한국에서의 연구와 유사한 상황으로서 한국과 일본의 학계의 연구를 종합해 보더라도 그 연구의 저변이 결코 넓은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다.

한국에서의 연구 상황이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간단히 요약만 지적하자면 먼저 전문연구자가 극히 소수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근대사분야에서 군사사 연구자들의 풀이 제한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연구저변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또 하나는 사료가 매우 제한적이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어 자료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 등이 조선군에 대한 연구 사료의

---

1) 임종국 『일본군의 조선침략사』 1, 2(일월서각, 1989)

중심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 방위성 자료에 대한 접근이 이전부터 그리 용이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더불어 개항기와 일제강점기의 일본의 조선 침략에 대한 사료들의 대부분이 일본어자료라는 점으로 인해 자료상의 언어의 장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결국 전문연구자들은 이 일본어 자료를 구사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언어적인 한계도 연구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사료총서는 조선군에 대한 기초적이며 중요한 사료를 수집하여 한국어로 해제 번역 출간함으로써 앞으로 한국에서의 조선군 연구에 대한 지평을 넓히는 기초적인 연구 저작물이라는 점만으로도 그 학술적인 의미가 큰 연구라고 할 수 있다.

## 2. 사료총서 ①~⑨의 각권의 구성 내용과 특징

한반도주둔일본군 사료수집·번역총서①~⑨의 각권의 서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료총서① 일본의 군사적 침략과 한국주차군

(역사공간, 조건 편역)

사료총서② 군대해산과 한국주차군의 독립운동 탄압

(역사공간, 김영숙 편역)

사료총서③ 일본 해군의 한반도 기지 건설

(역사공간, 김연옥 편역)

사료총서④ 일제 헌병의 조선 주둔과 식민지 지배

(역사공간, 조건 편역)

- 자료총서⑤ 조선군의 기지 구축과 무단지배  
(역사공간, 김영숙 편역)
- 자료총서⑥ 중일전쟁과 한반도 병참기지화  
(역사공간, 김윤미 편역)
- 자료총서⑦ 일제말기 조선군의 전시동원과 식민지배  
(역사공간, 조건 편역)
- 자료총서⑧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조선군의 동원·개편·해체  
(역사공간, 김영숙 편역)
- 자료총서⑨ 한반도주둔 일본군의 기초 사료 해제집  
(역사공간, 한반도주둔일본군연구팀 편)

먼저 각권의 주제와 구성 내용, 그리고 그 사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료총서①** 일본의 군사적 침략과 한국주차군(역사공간, 조건 편역)은 주로 러일전쟁 시기의 ‘한국주차군’<sup>2)</sup>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1. 청일전쟁 이후 한국주차대의 편성과 활동(1894년 6월~1903년 11월)에서는 청일전쟁 이후 러일전쟁의 개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의 사료를 중심으로 한국주차대 편제와 러일전쟁 직전까지의 경성주차대의 보고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는 청일전쟁에서의 조선으로 출병 경험이 러일전쟁으로 연결되면서 1890년대 청일전쟁 당시의 일본군의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을 매뉴얼화하여 1900년대 러일전쟁에서도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바로 한국주차대가 러일전쟁이 발발하면서 한반도를 무력으로 강점하는 임무를

---

2) 한국주차군은 1904년 2월 러일전쟁 개전과 동시에 한반도를 무력점령하기 위해 편성된 임시한국주차대에서 비롯된 한반도주둔 일본군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갖고 편제된 부대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2. 러일전쟁기 간첩활동과 군사적 침략에서는 러일전쟁 시기의 한반도에서의 일본군의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 한국주차군의 편성과 활동에서는 한국주차대의 편성, 병영 등의 건축, 한국주차군 사령부 조례 등 한국주차군 및 한국주차군 사령부의 전모를 알 수 있다. 4. 한국주차군의 군사활동 보고에서는 1907년~1910년까지의 한국주차군의 보고서를 해제 번역한 것으로서 러일전쟁이 끝난 뒤에도 일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하지 않고, 한국주차군으로 계속하여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군사강점의 상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5. 한국주차군 연도별 작전계획은 1907년~1910년까지의 연도별 작전계획에 관한 군중앙부의 훈령으로서 연도별 전시 작전 계획, 즉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주차군은 어떠한 작전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사료이다.

사료총서①은 러일전쟁기를 전후한 시기부터 1910년 한국병합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한국의 무력강점의 전위부대였던 한국주차군에 대한 자료를 주요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료총서②** 군대해산과 한국주차군의 독립운동 탄압(역사공간, 김영숙 편역)는 주로 1907년과 1908년의 한국주차군의 전투상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1907년은 정미7조약으로 알려진 ‘일한신협약’이 체결된 해로서 헤이그밀사 사건을 트집 잡아 한국군대 해산과 고종의 퇴위, 후기의병투쟁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했다. 사료총서②권은 1907년 9월부터 1908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한국 각지에서 발생한 의병투쟁을 탄압하는 일본군의 전

투행위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전투상보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1905년 을사늑약을 강요한 일본은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들고 난 후 점차적이지만 본격적으로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전개되는데 한국식민지화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1907년이었으며, 한국 민중의 일본에 대한 저항이 거세어지기 시작한 시기에 발생한 후기의 병투쟁에 대해서 일본군이 어떻게 대처하고 철저한 탄압을 실행해 갔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료를 해제 분석한 점이 그 특징이다. 이러한 한국주차군의 전투상보 자료는 나중에 『조선폭도토벌지(朝鮮暴徒討伐誌)』<sup>3)</sup>를 간행하는데 근거가 되는 자료이기도 하다.

**자료총서③** 일본 해군의 한반도 기지 건설(역사공간, 김연옥 편역)은 일제강점기 식민지조선에서 일본 해군의 활동을 중심으로 사료를 해제 번역한 것이다.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역사적 사실 가운데,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지구의 절반 이상을 돌아오는 원거리 항해에 지쳤던 러시아 발틱 함대를 맞이하여 만이틀 만에 이를 거의 전멸시켰던 일본의 연합함대 본진이 발틱 함대를 영격(迎擊)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곳이 다름 아닌 진해만이였다. 1910년 한국병합을 전후하여 일본의 조선통치의 물리적 근간은 일본 육군이였다. 조선총독부 설치 이해 조선통치의 중심세력은 일본 육군이었던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일본 해군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조선의 경남 진해만과 함경도 영흥만에 일본 해군 기지가 건축되어 일본 육군이 주도하는 조선군사령부 아래 배속되어 있었다.

3) 『조선폭도토벌지(朝鮮暴徒討伐誌)』(조선주차군사령부, 1913)는 1913년 조선주차군사령부에서 간행한 항일의병 탄압을 기록한 책이다.

**사료총서③**의 제1장은 일본 해군의 진해·영흥 기지 구축에 대한 사료를 해제 번역하였다. <극비자료> 1909년의 군항의 성질, 가치 및 필요한 시설방침을 비롯하여 1934년까지 주로 진해를 중심으로 한 해군 자료가 주된 분석의 대상이 되어 있다. 참고로 영흥만 요새 건축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이미 충실한 선행연구<sup>4)</sup>가 존재하고 있는 점을 지적해 두겠다. 또한 마산과 영흥만 중포병 연대의 설치과정이나, 1923년부터 1936년에 걸친 조선에서의 해군군사시설의 확장과정에 대한 자료도 주목할 만하다.

**사료총서④** 일제 헌병의 조선 주둔과 식민지 지배(역사공간, 조건 편역)는 제1장 일제 헌병의 조선 주둔과 역할, 제2장 조선 주둔 헌병의 역사 자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1910년 9월의 한국병합에 연동하여 조선주차 헌병 복무규정 자료를 비롯하여 조선주차 헌병과 조선인으로 구성된 헌병보조원 규정을 분석 해제하고 있다.

원래 헌병이란 군사경찰로서 군대라는 조직 내부의 경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엘리트 군사기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군 헌병도 이와 유사한 엘리트 군사기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선 주둔 일본 헌병의 특징적인 점은 조선 민중의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제대로 군사경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무자격에 가까운 인원을 모아 대규모의 헌병기구를 만들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1914년 당시) (조선에서는 조선인으로 구성된 헌병)보조원을 포함하는 조선주차헌병대의 인원이 거의 8,000명(그 중 일본인 헌병은 약 3,500명)이었는데 비해서 일본 본국의 헌병의 총 수는 1,000명이 조금 넘는 정도였다”<sup>5)</sup>는 지적에

4) 加藤圭木, 「日露戦争以降の朝鮮における軍事基地建設と地域—永興灣を對象として—」 (『一橋社会科学』 第5卷 第号) p.29-43 참조.

5) 松田利彦, 「解説 朝鮮憲兵隊小史」 『朝鮮憲兵隊歴史 第1卷』 (不二出版, 2000年),

서도 잘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1907년 이후 항일의병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조선인으로 구성된 헌병보조원제도를 만들어 조선인으로 하여금 항일조선인을 탄압하는 헌병 말단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조선인 헌병보조원제도는 1908년부터 해방을 맞이하는 1945년까지 존속했던 기구로서 1908년 최초로 모집한 조선인 헌병보조원만 4,234명이었으며 1918년까지 매년 약 4,600 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sup>6)</sup>

제2장에서는 조선 주둔 헌병의 역사적 자료를 중심으로 조선 헌병의 기원과 연혁에서부터 1919년 3.1독립운동에 대한 탄압의 실상, 조선헌병대의 역사, 경성헌병대의 역사 자료를 중심으로 해제 번역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헌병경찰시기의 헌병대의 역할과 행동을 잘 보여주는 자료집이라고 할 수 있다.

**사료총서⑤** 조선군의 기지 구축과 무단지배(역사공간, 김영숙 편역)는 제1장 1910년대 일본군의 조선 주둔 관련 자료, 제2장 1919년 3.1운동에 대한 탄압, 1920년 조선의 정황에 대한 첩보 보고, 제3장 1919년 3.1운동에 대한 조선군사령부의 각종 보고서, 제4장 1930년대 일본군의 만주침략에 일익을 담당했던 조선군의 상황에 대한 자료로 구성이 되어있다.

그 중 특징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제1장에서는 1915년 이전의 조선주둔군이 조선주차사단 및 임시파견부대의 형식으로 일본 본토에서 1년에서 2년간 교대로 파견되어 주둔하고 있던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으며, 1916년부터는 제19사단, 제20사단의 조선 상주사단이 편성되는 과정을 다루는 자료가 포함되어

---

2쪽, 8쪽 참조.

6)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III-2(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9년), 182쪽 참조.

있다. 제2장에서는 1919년 독립운동 탄압과정에서 조선주둔군이 담당했던 역할과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제3장은 1919년 3.1운동 당시의 정황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제 번역작업이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1931년 만주사변 이후의 만주침략에 조선군이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군은 전쟁을 상정하여 식민지 조선에 배치되어 중국, 러시아 (=소련)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최전방의 대외전쟁을 대비한 전투부대였지만 1910년대~1920년대에는 주로 조선 내의 치안유지와 조선인의 항일투쟁을 조선 내에서 탄압하는 역할에 치중하고 있을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30년대가 되면 조선군이 만주의 일본군인 관동군과 더불어 일본의 본격적인 만주침략의 선봉대로서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료총서⑥** 중일전쟁과 한반도 병참기지화(역사공간, 김윤미 편역)는 제1장 중일전쟁기의 군사수송과 제2장 조선군의 병참기지화 구상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937년 7월 일본의 중국대륙침략전쟁인 중일전쟁이 터지면서 일본은 본격적인 전시총동원체제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제1장에서는 일본본토의 동원부대의 철도수송에서 조선이 담당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임시병참, 병마창 업무에 대한 건, 철도수송과 병사들의 급양, 병참업무에 대한 건 등을 중심으로 1937년부터 1938년까지의 중일전쟁 초기의 긴박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의 사례를 들어보면,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조선국철은 임시열차(=군사철도)운영태세에 돌입하여 약 2개월

사이에 3번에 걸쳐 연인원 16만 명의 병력과 군마 약 4만 5천 마리, 기타 군수품의 수송을 수행하였는데, 이들 병력의 대부분은 서일본의 여러 항구를 출발하여 징용선박을 이용해 부산으로 이동한 다음, 경부선, 경의선 철도를 통해 만주의 안동으로 운송되었고, 거기서 중국의 화북지역으로 수송되었다.<sup>7)</sup>

물론 이러한 전시기 군사철도 우선 전용이라는 비상조치는 일반 화물수송을 크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중일전쟁 발발 직후 약 2개월 사이에 경부선, 경의선을 비롯한 조선철도 전체 노선의 열차운행을 제한하여 확보한 화차의 약 80%를 군사수송으로 전환한 결과 엄청난 내수물자의 운송제한이 발생하였고, 8월부터 약 한달 이상은 석탄과 광석을 제외한 모든 화물의 수탁들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일시적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조선인들의 경제활동에 큰 타격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물자부족과 물가상승을 초래하게 되었다.

제2장에서는 1938년부터 일제가 본격적인 전시총동원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중국의 전선으로 병력과 각종 무기와 식량 등 병참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서는 중간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조선의 철도와 항만의 기능을 강화하고 조선 자체를 병참 기지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던 것을 잘 보여주는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중일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일본은 전시총동원체제에 돌입하게 되는데 조선국철을 비롯한 조선의 육상운송부문은 초과수요의 압력을 끊임없이 받게 되었다. 국가통제체제 하에서 공업화가 발전<sup>8)</sup>되는

7) 石川準吉 『國家總動員史 上』 (國家總動員史刊行會, 1983), 965~1297쪽.

8) 1930년대 전시체제하에서 조선에서 공업화가 발전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事實)로서는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엄밀하게는 그 공업화의 발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방적공업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조선은 면화생산지로서의 기능도 대폭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도 공업화의 발전이라고 평가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堀和生, 『朝鮮工業化の史的分析—日本資本主義と植

한편으로 일본의 중국점령지의 획득은 군사수송을 포함하는 일본, 만주, 중국 블록으로의 교통량의 증가를 초래하여 조선국철의 수송량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사료총서⑦** 일제말기 조선군의 전시동원과 식민지배(역사공간, 조건 편역)는 1939년부터 1945년 일본의 패전 직후의 시기를 대상으로 이른바 중국침략전쟁인 중일전쟁과 더불어 1941년부터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되었던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의 조선군에 대한 자료를 해제 번역한 것이다. 제1장은 아시아태평양전쟁기의 조선군의 전시동원, 제2장은 조선군 헌병의 전시 활동, 제3장은 패전 직후의 일본군의 조선지배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사료총서⑦에서는 먼저 일제의 전시총동원기의 조선인 병력동원에 대한 부분으로 조선인 지원병, 징병제도 실시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어서 조선군 경성헌병대와 조선헌병대의 전시기 활동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또 그동안 그리 주목하지 않았던 일본의 패전 직후의 조선군의 상황에 대한 자료도 제시하고 있어 조선군이 패전 직후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귀환 구상을 갖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전쟁기의 조선군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연구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며 향후 이 시기의 조선군에 대한 연구 및 특히 조선인의 병력동원의 실상에 대한 연구가 대폭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사료총서⑧**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조선군의 동원·개편·해체(역사공간, 김영숙 편역)는 제1장 전시기 일제의 조선인 병력동원정

---

民地經濟, (有斐閣, 1995) 참조.

책에 관한 자료, 제2장에서는 조선군 예하 부대인 제20사단, 제17방면군 관련 지휘관 보고 자료 등이 분석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제3장은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1945년 8월 15일 이후의 조선군에 대한 전후처리 문제를 중심으로 이른바 조선군 귀환[復員]문제를 중심으로 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조선인 병력동원문제는 육군지원병제도, 해군지원병제도, 군속 동원에 관한 건, 학도지원병제도, 징병제도 등의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일정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전체상을 파악하기에는 향후의 연구의 확대가 더욱 필요한 연구 과제라고 생각된다.

조선군 지휘관의 보고서는 전쟁말기의 조선군 지휘관들의 전황보고가 중심이 되어 있으며 주로 전쟁 말기의 상황보고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패전 직후의 조선군 및 군 관련자들의 일본 본토로의 귀환문제가 제3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일본군 및 민간인 귀환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상당한 연구가 진척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연구결과들과 연동시키면서 향후의 연구 지평의 확대가 기대되는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할 점은 사료총서⑦과 일부 자료가 중복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 부분은 향후 보완하거나 차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사료총서⑨** 한반도주둔 일본군의 기초 사료 해제집(역사공간, 한반도주둔일본군연구팀 편)은 앞에서 살펴 본 사료총서①~⑧과는 약간 체제 구성이 달리 이루어진 해제 번역 자료집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①~⑧ 사료총서는 한반도주둔일본군 연구팀의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해제 번역작업을 한 것으로서 시대별, 주제별로 구분하여 각론적으로 해제 번역작업을 행한 자료집인 것에 비해 사료총서⑨는 연구팀 전체가 참여하여 간행한 총론적인 기

초사료 해제집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1부에서는 일본군의 무력침략과 군사지배 관계 사료를 중심으로 한국주차군 전투상보, 진해만, 영흥만 관계서류, 조선주차군 경리부 역사, 조선헌병대역사, 조선 상황 보고 등의 사료에 대한 기초적인 해제 작업을 제시하고 있다.

제2부는 시기별 주요 사료라는 제목으로 1870~1890년대부터 시작하여 1945년 일본의 패전 직후의 시기에 이르기까지의 각 시기를 대체로 10년을 단위로 구분하여 기존의 사료총서에서 제시하지 못한 자료와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충실하게 제시하고 있다. 각 시기의 자료도 후반부로 갈수록 분석 대상이 되는 자료의 분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앞서 언급한 사료총서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시대의 상황이나 사건 등 역사적 사건의 변화에 따라 구성된 기초 자료의 해제집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구분하다보니 각론적인 주제에 맞추어 구성했다고 하기 보다는 각 시대별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발췌하여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자료의 연관성과 정합성이 일관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즉 정치적 사건, 조선군 및 헌병대의 파견과 군사시설에 관련된 자료, 조선의 항일운동에 대한 대응과 탄압, 조선군 군사시설의 설치, 진행 영흥의 해군기지 및 요새 건설 관련 자료, 조선철도의 군사철도로서의 역할, 만주로의 조선군의 월경 침략행위, 전시총동원시기의 다양한 조선군 관련 자료가 시대적인 정합성은 갖추고 있지만, 상호 연관성이나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앞의 사료총서①~⑧의 각론적 해제 번역 작업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자료와 일부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 내용의 확인과 정리 작업이 추후에라도 보완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 3. 나가는 말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875년 강화도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한국의 근대사는 일본과는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하나의 사상(事象)의 빛과 그림자와 같은 관계를 지녔던 역사였다고도 말 할 수 있다.

달리 이야기하면 한국의 근대사의 전체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근대를 알고 있어야 하며, 일본근대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도 일본제국주의의 역사적 행위와 관련되는 확대되어진 공간, 즉 한국을 포함하는 영역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근대 일본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이해를 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의 근대사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일국사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동아시아사적 관점, 나아가 세계사적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관점에서 입각해 볼 때, 조선에서 활동했던 일본군, 즉 조선군에 대한 연구는 일국사적 한계를 넘어서는 한국근대사의 연구 분야이자 일본근대사, 나아가 동아시아 근대사의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반의 열악한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 근대사 연구의 지평이 제한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한반도주둔일본군에 대한 연구의 확대는 한국근대사

연구의 깊이와 지평을 확대시키는 것이라는 관점에서든 매우 중요하며 향후 중요한 역사학적 연구과제로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위의 사료총서의 간행은 조선군에 대한 모든 자료를 망라한 것은 아니지만, 조선군 연구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집으로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등의 학계에도 많은 자극을 줄 수 있는 연구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사료총서의 간행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향후 군사사적으로도 조선군이라는 연구주제가 확대되어 한국, 일본, 중국 등 근대 동아시아의 군사사 연구의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